

“70년 한 풀고 미래로 가려면 여순사건 특별법 반드시 제정돼야”

지역민·사회단체·정치권 “특별법 국회 상임위 상정 환영”
여수시의회 건의안 채택... 영화 ‘동백’ 감독 “아름 위로 되길”

“70여년의 한을 풀고 화합을 통한 미래로 가기 위해 법 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은 결과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활발한 활동에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부풀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특별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해 힘을 보탤고, 여순사건을 다룬 영화 ‘동백’의 제작진도 특별법 제정을 응원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실에 따르면 최근 소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 행안위에 상정됐다.

전남도민과 여수·순천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여순사건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소 의원은 지난 10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제안 설명했다.

소 의원은 “제주 4·3사건, 노근리사건, 거창사건, 광주 5·18민주항쟁 사건 등은 특별법이 제정돼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이 이미 진행됐거나 진행 중에 있으나 여순사건은 아직까지 특별법조차 없

다”며 “16·18·19·20대 국회에서 매년 발의됐으나 아직까지 통과 되지 않고 있어 전남·북과 경남 등에서는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밝혔다.

여순사건 시민추진위원회는 “여순사건 특별법이 지역민의 염원과 달리 국회에서 매년 자동 폐기됐는데, 지역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으고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이제는 제정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반드시 법 제정을 이뤄 70년의 한을 풀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은 진상화해위원회와 사법부가 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여순사건 발생 72년이 지나 많은 증거가 사라지고 있는 데다 희생자와 유족들이 사망하거나 생존자는 80~90대로 고령인 점을 감안할때 특별법 제정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발의된 ‘여순사건특별법’은 김승남·김희재·서동용·주철현 의원 등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5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들 의원은 행안위 제1소위 심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협조체제를 더욱 긴밀하게 공동하고 수시로 의논할 계획이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14일 제20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여수시의회 제공)

전남 동부권을 중심으로 사회단체와 지역정치권, 시민들도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14일 제20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민선의회 의원 등이 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민 의원은 “여순사건은 7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실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과거사정리기본법을 통한 진실 규명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 제정과

시행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건의문은 여순사건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사건 진상규명, 희생자·유족 명예회복 등을 담고 있으며, 여수시의회는 이 건의문을 국회와 청와대 등에 송부했다.

여순사건을 다룬 영화 ‘동백’의 신준영 감독은 “우리 역사에 아픈 모습으로 남아있는 여순 사건을 재조명해 유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싶다”며 “많은 국민이 여순사건에 조금 더 관심을 가졌

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고 특별법 제정을 응원했다.

한편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 2001년부터 4차례에 걸쳐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부류되거나 심사조차 못한채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여수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을 거부하며 발생한 사건으로 그 과정에서 많은 지역민들이 희생됐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민관학 플랫폼 구축·체류형 농촌유학 추진

곡성미래교육재단 정담회서
창의융합 교육시책 13건 발굴



곡성미래교육재단은 지난 11일 정담회를 열어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양성 13개 시책을 발굴, 발표했다. (곡성미래교육재단 제공)

곡성군이 민·관·학 플랫폼 구축, 체류형 농촌유학 운영, 생태환경 교육 등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시책들을 추진한다.

16일 곡성미래교육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최근 군·의회·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어 창의융합형 교육을 통한 미래형 인재양성을 목표로 13개 시책을 선정했다.

재단은 주요 사업으로 지역주민이 교육주체가 될 수 있도록 참여하는 민·관·학 플랫폼 구축, 지속가능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꿈농자학교 생태환경 교육, 꿈농자놀이터 구축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군민의 참여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곡성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 지역 내 교육자원과 연계한 고달면 마을도서관 조성, 도시민 인구 유입을 위한 체류형 농촌유학 운영 등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방식의 리더스 아카데미도 운영하기로 했다.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찾아 성장할 수 있도록 4차 산업 창의융합 프로그램 강사 양성, 진로진학 컨설팅 지원,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지원

등도 추진한다.

미래교육재단 초대 이사장 유근기 곡성군수는 “행복한 곡성교육을 만들고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가정·사회·학교 교육을 통합해 아이뿐 아니라 모든 군민이 성장하면서 함께 나누는 평생교육의 토대를 만들

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곡성미래교육재단은 지난 7월 출범한 지역교육협력 거버넌스다. 곡성군에서 파견된 직원 7명을 비롯해 교육지원청 장학사·교사·교육행정직 등 총 17명 3개팀으로 조직됐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고흥군·의회 “군공항 이전 후보지 즉각 철회하라”

“뜬금없는 후보지 거론 군민 우롱”

고흥군과 고흥군의회는 16일 국방부의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 검토에 대해 고흥의 미래를 죽이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고흥군과 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고흥만 간척지는 고흥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 나가기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드론특화지식산업센터, 드론특화산업단지가 추진 중이다. 간척지 바로 옆에는 고흥지역 최초의 리조트와 대규모 관광단지가 준공을 앞두고 있다”면서 “고흥만간척지 일대는 고흥의 비전을 결인하고 고흥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지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군공항이 들어서면 현재 진행 중인 고흥만간척지 주요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고흥의 미래가 없어지고, 510만평의 대규모 농경지가

일시에 사라져 농민들의 삶의 터전과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고흥군과 고흥군의회는 날벼락같은 군공항 이전 검토 소식에 크게 분노하며, 느닷없이 군공항 유력후보지로 거론하는 것은 고흥군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는 입장이다.

국방부가 광주 군공항 후보지로 고흥군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고흥지역 모든 기관·사회단체를 비롯한 6만5000군민과 전국의 70만 고흥출신 향우들이 총력기해 결사적으로 반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귀근 고흥군수는 “청정 고흥에 소음피해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군 공항을 이전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고흥군 이전 검토를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단계별 대응계획을 수립해 전 군민과 함께 총력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침수 피해’ 구례5일시장 내일부터 재개장

지난달 7~8일 폭우로 완전히 물에 잠긴 구례5일시장이 한 달 여만에 응급복구를 마치고 18일부터 부분적으로 재개장한다.

폭우로 구례5일시장은 157개 점포 1층이 모두 잠기고 유실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구례군은 임시휴장 동안 시설 개선·보완 작업을 하고 건축물 안전점검까지 마쳤다.

대규모 자원봉사자와 군인들의 응급 복구로 지금은 다수의 점포가 정리를 마치고 상품비치 등 개장 준비에 한창이다. 앞으로 점포 내 노후 전선을 정비하고 소방·하수시설·에어컨 개보수를 통해 시장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공연장과 체험 시설·쉼터도 강화해 5일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매매 물건	경매 물건
<p>건 물 ▶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p> <p>건 물 ▶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p> <p>의료시설 ▶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p> <p style="text-align: center;">"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p>	<p>공장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토지 : 5388.4㎡(1630평) 건물 : 622.57㎡(188.3평) 감정가 : 5,106,825,160원 최저가 : 3,574,778,000원(70%) 유찰 1회</p> <p>공장 ▶ 전라남도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 토지 : 18875.5㎡(5709.8평) 건물 : 6386.82㎡(1932평) 감정가 : 5,994,297,460원 최저가 : 4,196,008,000원(70%) 유찰 1회</p> <p>공장 ▶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백호리 토지 : 10323.1㎡(3122.7평) 건물 : 1155.94㎡(349.7평) 감정가 : 1,892,743,280원 최저가 : 1,324,920,000원(70%) 유찰 1회</p> <p style="text-align: center;">"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p>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대표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